

보도시점 2026. 8. 11.(화) 11:00
2026. 8. 12.(수) 조간

배포 2026. 8. 11.(화)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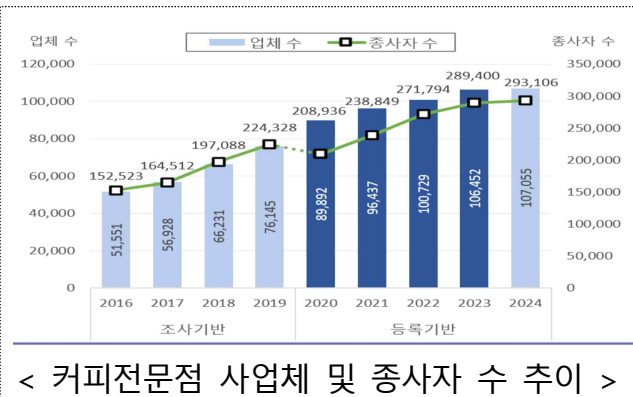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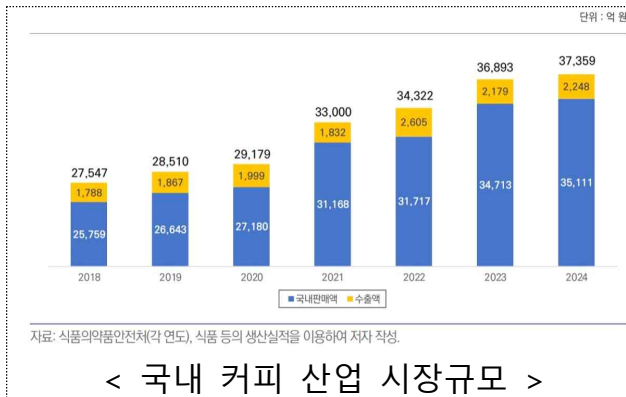
커피산업 3조 7천억 원 규모로 꺾춤... '취향'과 '실속'이 시장 키웠다

- 농식품부·농경연 2024년 커피산업 분석... 연평균 5.2% 성장, 외식업 핵심으로
- 커피 가공업 줄고 전문점은 10만 개 돌파, '원두 중심 프리미엄·저가 실속형' 양극화 뚜렷
- 원료 수입 속 K-커피 수출(2.2억 불) 선전, 프리미엄 로스팅 원두 해외 수요 급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농경연')이 커피산업 및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커피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 7,35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2%를 기록하며, 커피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가공업에서 커피전문점으로... 외식업체 7곳 중 1곳은 '카페'

산업 생태계의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커피 가공업 사업체 수는 1,660개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커피전문점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10만 6,452개를 기록했다. 전체 외식업에서 커피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9.3%에서 2023년 13.4%로 약 1.5배 증가해, 외식업체 7곳 중 1곳이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커피 산업 시장규모 >

< 커피전문점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

커피믹스에서 원두로,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소비 패턴 다변화

커피 소비 트렌드 또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원두 등 ‘볶은 커피’의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 3,225억 원을 기록, 지난 6년간 연평균 15.8%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커피믹스 등 ‘조제 커피’ 시장은 같은 기간 연평균 0.5% 감소율을 보여 소비의 중심축이 이동했음을 시사했다.

Ⅰ 국내 커피산업 세부 품목별 시장규모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성장률
볶은커피	국내판매액	5,463.6	6,991.6	7,310.4	10,987.1	10,327.8	11,516.6	13,206.2	15.8%
	수출액	15.4	14.5	16.7	9.5	92.7	12.8	18.8	3.5%
	매출액	5,479.0	7,006.1	7,327.1	10,996.6	10,420.6	11,529.5	13,225.0	15.8%
인스턴트 커피	국내판매액	2,027.2	1,538.0	2,208.4	2,201.3	2,231.8	2,333.5	2,387.5	2.8%
	수출액	1,017.4	1,168.7	1,406.9	1,345.2	1,762.9	1,676.9	1,655.1	8.4%
	매출액	3,044.6	2,706.8	3,615.3	3,546.5	3,994.7	4,010.4	4,042.6	4.8%
액상커피	국내판매액	9,756.0	10,131.6	10,198.7	10,883.3	11,297.2	12,376.2	10,916.4	1.9%
	수출액	299.3	235.7	202.4	186.5	232.2	225.9	463.5	7.6%
	매출액	10,055.3	10,367.3	10,401.1	11,069.8	11,529.5	12,602.1	11,379.9	2.1%
조제커피	국내판매액	8,512.3	7,981.3	7,462.4	7,096.3	7,860.1	8,486.9	8,600.9	0.2%
	수출액	456.3	448.4	372.6	290.7	517.1	263.9	110.5	-21.1%
	매출액	8,968.6	8,429.7	7,835.1	7,386.9	8,377.2	8,750.8	8,711.4	-0.5%
합계	국내판매액	25,759.1	26,642.5	27,179.9	31,168	31,716.9	34,713.2	35,111.0	5.3%
	수출액	1,788.4	1,867.3	1,998.6	1,831.9	2,604.9	2,179.5	2,247.9	3.9%
	매출액	27,547.5	28,509.9	29,178.6	32,999.8	34,322	36,892.8	37,358.9	5.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모든 소비가 고급화로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원두의 품종과 로스팅 방식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맛을 찾는 스페셜티 소비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출퇴근길이나 식사 후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려는 수요도 확대되면서 저가 커피전문점과 대용량 제품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뚜렷한 ‘이원화(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가격과 품질을 선택하는 다변화된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고도화된 소비 성향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이 동아시아에 본격 진출하기 전 시장성을 검증하는 ‘핵심 테스트베드’로 부상하고 있다.

원료 수입 의존도 속에서도 빛나는 K-커피 수출 가능성

국내 커피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2024년 기준 전체 커피 원료 수입량은 20만 4,841톤(수입액 13억 7,09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 구조 속에서도 수출 역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커피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2억 2,9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특히 커피 수출량(3만 5,349톤)의 98%를 인스턴트 커피가 견인하는 가운데, 최근 ‘볶은 원두’ 수출량이 급증(2025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6.8%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로스팅 기술이 결합된 프리미엄 원두의 해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입증했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이 수출 금액의 18.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중국(15.4%), 호주(7.1%), 필리핀(6.5%), 칠레(5.7%)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023년부터 이스라엘이 한국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신흥 시장으로 안착했다.

커피 주요 수출국의 수출금액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연번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1	이스라엘	20,494(13.0)	23,510(13.7)	33,127(18.9)	32,191(18.1)	34,674(18.1)
2	중국	29,689(18.8)	37,522(21.9)	34,580(19.7)	25,815(14.5)	29,579(15.4)
3	호주	11,768(7.5)	7,985(4.7)	10,846(6.2)	9,055(5.1)	13,686(7.1)
4	필리핀	6,128(3.9)	5,132(3.0)	5,826(3.3)	9,063(5.1)	12,525(6.5)
5	칠레	5,801(3.7)	13,053(7.6)	8,494(4.8)	2,108(1.2)	10,966(5.7)
6	러시아	6,436(4.1)	13,435(7.8)	11,342(6.5)	14,128(7.9)	10,525(5.5)
7	말레이시아	5,783(3.7)	7,809(4.6)	6,531(3.7)	8,511(4.8)	8,358(4.4)
8	캐나다	11,819(7.5)	6,783(4.0)	9,220(5.3)	8,039(4.5)	8,221(4.3)
9	미국	11,499(7.3)	6,313(3.7)	6,460(3.7)	6,932(3.9)	7,286(3.8)
10	일본	3,871(2.5)	4,686(2.7)	7,003(4.0)	11,738(6.6)	6,628(3.5)

주: () 안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커피산업은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과 실속형 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외식 정보분석 사업을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커피 제조 및 유통 과정에 푸드테크(FoodTech) 접목을 지원하고 K-푸드+(플러스)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김정빈 (044-201-2116)

